

보도 일시	즉시 배포	배포 일시	2023. 1. 25.(수) 14:00
담당 부서 <총괄>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서진희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 서경란 (044-200-5616)

남해 일부 연안 저수온 주의보 해역 확대 발표

- 피해예방 최소화를 위한 권역별 현장대응반 상시 가동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이번 주(1.24~25) 강한 한파의 영향으로 수온이 크게 하강함에 따라 1월 25일(수) 14시부터 전남 도암만, 경남 사천·강진만 해역에 대해서 '저수온 주의보'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.

- * 기존 저수온 특보 발표 현황(23.1.25 현재)
 - 저수온 관심: 남해 연안(22.12.9~)
 - 저수온 주의보: 가로림만(22.12.18~) / 서해연안, 득량만(22.12.28~) / 가막만(1.4~) / 도암만, 사천·강진만(1.25~)
 - 저수온 경보: 함평만(22.12.21~) / 경기만 북부(22.12.28~) / 여자만(22.12.30~) / 천수만(1.4~)

저수온 주의보 추가 해역은 전남 도암만과 경남 사천·강진만으로 이들 해역은 이번 한파의 영향으로 수온이 4℃에 도달하여 저수온 주의보가 발표되었으니 양식생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- * 주요 연안 수온(1.25 08시) : 가로림만(1.9℃), 가막만(3.8℃), 도암만(2.2℃), 사천·강진만(3.1℃), 통영(9.5℃)
- ** 저수온 특보 발표기준 : (주의보) 수온 4℃ 도달, 전일대비 3℃ 하강 또는 평년대비 2℃하강
(경 보) 3일 이상 수온 4℃ 이하 지속, 전일대비 5℃ 하강 또는 평년대비 3℃하강

저수온 특보 해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,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 해역(160개소)의 수온 변동정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수온정보와 특보 발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고, 권역별 현장 대응반을 가동하여 양식장별 수온과 양식생물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.

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앞으로도 낮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*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, 양식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

*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‘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(www.nifs.go.kr/risa)’ 및 ‘수온정보서비스’ 어플리케이션

담당 부서 <총괄>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서진희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 한성민 (044-200-5614) 사무관 서경란 (044-200-5616)
	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	책임자	과 장 정래홍 (051-720-2210)
		담당자	연구관 한인성 (051-720-2230) 연구사 이준수 (051-720-2231)
	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	책임자	과 장 황형규 (051-720-2410)
		담당자	연구관 남보혜 (051-720-2420) 연구사 최 진 (051-720-2431)

